

## < 제 16 장 >

**요 16:2**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장차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그 박해를 행하는 자들조차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

박해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왜곡된 신앙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묻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며,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점’(point of view)은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을 기준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신앙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으며,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요2:17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열심”(ζήλος 켈로스)은 열정과 열의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감정에 의해 마음의 힘을 소모하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인간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지한 열심’은 순종이 아니라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방향이 없는 열정은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를 소진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신앙은 ‘나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

**요 16:4**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에게 자신으로 인해 훼방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자들에게 박해와 환난의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승천하신 후에 교회와 제자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참조. 마10:16-39)

**요 16:7**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내리니”(πέμψω 펴포)는 ‘보내다’, ‘어떤 대상에게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가진 파송을 뜻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떠나가야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되어 이루어진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신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일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후 성령의 사역이 시작됨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신 후, 성령으로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과 성령으로 신자들에게 임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때가 되어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과 성령 강림은 하나의 구속 역사 안에 있는 연속된 사건으로,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성령 안에서 적용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요 16:9**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절**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절**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죄”(ἁμαρτία 하마르티아)는 옳은 길에서 의식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3:19 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므로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며, 성령께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것이다.

“의”(δικαιοσύνη 디카이오쉬네)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상태, 곧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옳음’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이 드러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가 되는 것이다.

“심판”(κρίσις 크리스시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결정과 판결을 의미하며,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최종적 선언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을 가리키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이미 패배하였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은 미래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미 시작된 사건이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으며 세상 종말에 이르러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요 16: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았지만, 그들이 지금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요 16:13**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진리를 점차 드러내어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계시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한 진리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그 진리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신약 성경이 형성될 것을 의미한다. (참조. 요14:26)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장래 일”이란 단순한 미래 사건의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복음의 진리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밝히 보여 주시는 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구원의 진리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모든 신자에게 전해지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벧후1:21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다. 결국 성령의 사역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드러내고 적용하는 데 있다.

<장래 일>(ἐρχομαι 엘코마이)

“장래 일”은 단순한 미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드러날 일들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서는 태초부터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으며, 그 계획하신 일들이 때에 맞추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과 성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사43:19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전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때가 되어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한다.

“나타날 것이라”(Spring up)라는 표현 역시, 싹이 나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심겨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때가 되어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장래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때가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리시고 준비하게 하실 때도 있다.

보이지 않는 준비가 먼저 있고, 보이는 성취는 그 결과로 나타나며, 미래는 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된 성취이다.

그러므로 계시는 미래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נְבִיאָה 네부아 / נָבִיא 나바 / προφητεῖω 프로페튜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 주신 장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말에서 유래된 동사는 ‘나바’이며 이는 ‘예언하다’라는 뜻으로 ‘선지자’(나비)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신약에서는 예언을 ‘프로phetia’라고 하는데, 이 용어 역시 히브리어 ‘네부아’와 같은 의미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언은 인간의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로서, ‘앞서 말한다’는 의미는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먼저 선포하는 데 있다.

## 1. 예언의 조건

예언의 근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시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내용을 계시해 주셔야 예언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을 그의 뜻대로 계획하신 섭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 있어야 예언이 가능하며, 계획되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기초로 하며 그 선행 조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시면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계시해 주셔야 그가 먼저 알게 되고, 먼저 알게 되어야 예언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언은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며,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작정하신 뜻을 미리 알게 하신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시대에는 족장들,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으며, 신약시대에는 세례요한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언을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예언의 선행조건은 하나님의 창세 전 작정하심과 그 작정하신 내용을 계시하심에 있으며, 이러한 선행 조건 위에 세워진 예언이 곧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

## 2. 예언의 구분

성경적인 예언은 ‘직접적인 예언’과 ‘간접적인 예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예언’은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내용을 음성이나 환상 또는 꿈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직접 주어지는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처럼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에는 족장들이나 선지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예언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은 대부분 성경으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기록한 대표적인 ‘직접계시’의 예언이며, 또한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의 예언 역시 직접계시에 의한 예언이라 할 수 있다.

‘간접적인 예언’은 이미 완성된 직접적인 예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예언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론하는 행위는 간접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예언의 목적

예언의 목적은 계시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예언의 중심은 미래를 아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직접적인 예언의 목적은 성경 계시의 완성에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반면 간접적인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시대에 족장들과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의 직접적인 예언을 통하여 구약성경을 완성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택하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직접적인 예언을 통하여 신약성경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장래 일”과 “예언”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장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사건 자체이고, ‘예언’은 그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다.

사도 이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도들과 같은 수준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말씀이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계시의 완성과 사도적 권위의 성격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사도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단회적인 직분으로, 사도직은 반복되거나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는 동일한 성령이지만, 사역의 방식과 목적에는 구속사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증거하고 전한 복음과 그 기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권위와 사역은 오늘날의 종들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없으며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 이 시대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와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뜻을 풀이해 주시며 또한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나 인간적인 해석만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깨달아져야 한다.

주석가나 학자들이 연구하여 설명하는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는 말씀의 뜻은 그 깊이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인간의 해석은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계시의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

**요 16:16-20**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심.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속사적 흐름이다.

**요 16:28**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완전한 사실을 말씀하심.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심을 선언하는 표현으로, 처음부터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며,

“세상에 왔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인성을 의미한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승천을 통하여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요 16:29-33**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의 능력)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승리를 현재형으로 선포하신 것으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ἔρα)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게 될 것이며 또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역시 이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악한 영들과 싸우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 위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의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 위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구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신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승리 위에서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